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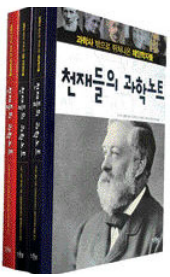
북스

Books

'천재들의 과학노트'

시리즈 3권 출간

지난해 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 2명이 선정되는 과정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길래 우주여행이 가능한 걸까. 1920년 미국의 로버트 고디드는 우주까지 날아가는 로켓 개발에 몰두한다. 선구적인 그의 연구가 기폭제가 돼 폰 브라운이 마침내 로켓 개발에 성공한다.



'천재들의 과학노트' 시리즈 8권 중 3권이 먼저 출간됐다. 시리즈는 과학의 각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10명의 과학자들을 다루고 있다. '해양학자', '우주과학자', '대기과학자' 등. '생물학자', '물리학자' 등의 시리즈가 계속될 예정이다.

코페르니쿠스에서 스티븐 호킹까지 시대를 가로지르며 과학에 몸을 바쳤던 이들의 일생과 연구 과정이 담겨 있다. '구름'이란 단어를 만든 루크 하워드, 기상역학의 원조 윌리엄 페렐, 타이타닉을 발견한 로버트 발라드 등의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다. <일출봉·각 권 9천700원>

“괴테 형님, 유복한 한 생 참 부럽습니다” “다산 아우가 파우스트 정신 실천했구려”

괴테와 다산, 통(通)하다 최종고 지음

“괴테 형님, 형님은 참으로 유복한 한 생을 사셨지요? 부럽습니다.”

“다산 아우, 참 고생 많았소이다. 그러나 나도 평생 행복했던 시간을 합치면 4주가 될까 말까라오.”

“형님, 그게 인생인가 보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실히 노력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나의 ‘파우스트 정신’을 아우가 실천했구려.”(본문 116p.)

독일의 대문호 괴테(1749~1832)와 조선의 지식인 다산 정약용(1762~1836)의 가상 대화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시대를 살았던 두 지식인을 씨줄과 날줄을 엮듯 비교한 책이 출간됐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는 ‘괴테와 다산, 통(通)하다’를 통해 각각 유럽과 동양을 대표하는 지식인 괴테와 다산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점에 착안해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다산이 13년 늦게 태어났고, 괴테가 4년 먼저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은 같은 60여년을 보낸 ‘동시대인’이었다.

다산이 16살이던 1777년, 괴테는 법학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고 있었다. 22세의 다산이 1783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괴테는 하르츠 등지를 여행하고 있었으며, 이듬해 괴테가 재상에 올랐을 때 다산은 천주교에 입문했다. 1818년, 18년의 유배생활 끝에 다산은 ‘목민심서’를 완성했고 1년 뒤 괴테가 70세의 나이에 전집 20권을 초간할 때 58세



의 다산은 ‘흠흠신서’를 썼다.

연대기를 통해 본 이들의 삶은 전혀 비슷한 점이 없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이 살던 때를 지배하던 시대정신, 유럽의 계몽주의와 조선의 실학사상을 떠올리면 어렵잖이나마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저자는 1장에서 이들의 자세한 연대기를 통해 각자의 삶을 재조명한다. 괴테와 다산의 이야기를 번갈아 씌으로써 비교를 더욱 쉽게 했다.

2장에서는 괴테와 다산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들의 역작인 ‘파우스트’와 ‘목민심서’는 전혀 다른 장르의 글이지만, 자신의 메시지를 인간의 내면에 호소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의 일부 내용 중에는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목도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괴테학과 다산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 성격”이라며 “나 같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특권 내지 만용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1999년 괴테 탄생 250주년을 맞아 창립된 ‘괴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같은 저자의 겸손에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을 엮어내는 솜씨가 녹록치 않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철학과 인간, 학문, 종교, 문학, 법률 등 10개 분야에서 나타난 이들의 생애와 업적을 촘촘하게 개워맞추고 있다. 책장을 넘기고 싶다면 괴테와 다산이 했음직한 가상 대화가 실제로 가능했는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추수밭·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눈물은 참지 말고 분노는 폭발시키라

상실수업 퀴블러 로스·데이비드 케슬러 지음

죽음을 앞둔 사람은 보통 ‘상실의 5단계’를 경험한다고 한다.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 등 5가지 수용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망자를 떠나보낸 뒤 홀로 남겨진 뒤에 다시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된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의 제자 데이비드 케슬러는 ‘상실수업’을 통해 가족이나, 지



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들려준다. 이 책은 베스트 셀러 ‘인생수업’을 펴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후속작이자 유작이다.

8년 동안 중풍을 앓아 이 책의 출간을 앞두고 숨을 거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상실’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실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는 삶의 증거’로 받아들여라”고 충고한다.

저자는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뒤 느껴지는 분노와 통곡, 원망 등 수만가지 감정을 여누르지 말고 모두 드러내라고 말한다. 상실의 불공평함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인 분노를 극한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고통이 해소되는 반대편 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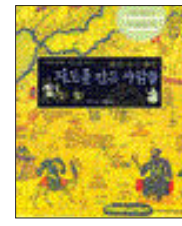
울음도 지유의 한 과정이다. 눈물이 나올 경우 자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어버릴 때에만 눈물이 멈추고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저자는 사고, 자살, 피살,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들의 유족들이 겪은 일화를 통해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사례별로 보여준 뒤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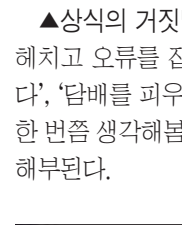
그녀는 상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던 만큼 실컷 후회하고, 미워할 만큼 미워하다가 쓰러질 때까지 최대한 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레·9천8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도를 만든 사람들=지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만큼 오래됐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조차 지도에 담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냈다. 책에는 지도 제작 분야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과 사건을 13개 주제로 나눠 다루고 있다. <아침이슬·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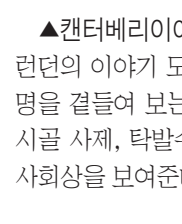
▲음식의 거짓말=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음식의 진실을 파헤치고 오류를 잡아내고 있는 책. ‘흰 머리는 뽑으면 더 늘어난다’,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맥주를 마시면 살이 쪼다’ 등 한 번쯤 생각해볼만한 주제들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해부된다. <새론북스·9천원>



▲겐지와 겐지초(전 2권)=‘은하철도 999’를 탄생시킨 노벨문학상 수상자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 4소설이 다카하시 겐지치로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책은 24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겐지의 동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창조했다. <웅진지식하우스·각 권 1만원>



▲이름의 변호사=미국 작가 제프리 블라크만의 블로그 소설. 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지난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훌륭한 웹사이트 50선’에 포함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로블의 ‘이름의 변호사’가 사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암투를 다루고 있다. <두드림·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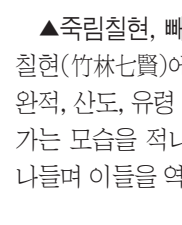
▲캔터베리아 이야기=14세기 영국 작가 제프리 초서가 쓴 중세 런던의 이야기 모음집. 19편의 이야기를 골라 다양한 삽화와 설명을 곁들여 보는 재미를 더했다. 기사와 중, 수녀원장, 변호사, 시골 사제, 탁발사, 의사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해 당시 사회상을 보여준다. <서해문집·1만4천900원>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과학저널리스트와 실용화학자 등 저자들은 화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루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화학적 사건들’을 시간대 별로 추적한다. 원제는 ‘화학 24시’. <에코리브르·2만7천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코끼리 모독=미국에 실존했던 코끼리와 인간 사이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소설. 1896년 독일의 한 마을에서 코끼리와 아이가 동시에 태어난다. 코끼리 ‘모독’과 소년 ‘브람’은, 미국에서 재회해 우정을 이어간다. <동아시아·9천800원>



▲죽림칠현, 배어난 속물들=3세기 중국의 지식인 집단 죽림 칠현(竹林七賢)에 대한 이야기. 편린으로만 남겨지고 있는 혜강, 안적, 산도, 유령 등 7명 선비들의 행적과 글을 통해 난세를 헤쳐 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소설과 역사서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들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낸다. <푸른역사·2만원>



▲아주 특별한 상식 NN 시리즈=지난 2001년 영국에서 출간된 ‘The NO-NON-SENSE guide’의 한국어판. 1차분 5권이 먼저 출간됐다. 주제는 세계화, 세계의 빈곤, 과학, 기후변화, 공정 무역 등. 각 주제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 각종 정보와 분석이 수록돼 있다. <이후·각 권 9천500원>

휴집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학도출판예로 저속의 권리를 지키세요!

黃土

U best 당신이 최고입니다!

U best is the best!